

世界養鷄產業의 動向

세계가금학회한국지부

폴란드

동구 공산권에서 가장 양계산업이 발달한 폴란드에서는 가금육종 및 양계산업 현대화를 위한 5개년 계획(1976~80년)을 진행 중이며 이계획의 (2년동안) 업적으로 가금생산물 중에서, 닭고기는 1976년 도에는, 75년에 비하여 15%증가한 288,000 Ton, 1977년에도 '76년보다 14%한 329,000 Ton으로 증가되었다. 계란생산은 고기생산과는 달리 산란계 사육농가가 감소되었지만 1976년 80억 개에서 1977년 81억 만개로 약간의 증가를 보였다. 전체 가금육 생산량 중에서 Broiler가 80%정도 차지하며 1976년 17만TON에서 1977년에는 20만TON으로 증가하였고 오리와 거위고기가 4.2만TON에서 5.1만TON, 칠면조고기는 6천TON에서 8천TON으로 증가되었다. 국민 1인당 가금산물 중에서 닭고기 소비량은 1975년 6.6kg에서 1977년 8.5kg으로 늘어났고 그반면에 1977년 수출량은 1976년 20,200TON에서 13%가 감소한 18,000TON이었다. 이러한 추세는 원래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생산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폴란드의 돼지고기 생산량이 줄어들므로서 일어나는 현상도 있으나 중동 산유국들의 닭고기 수입요청에 힘입어 정부에서는 1,280억 Z (폴란드화폐단위)를 투자한 양계산업

현대화정책의 뒷받침이 큰 역할을 해온 것이다. 1976말 통계에 의하면 Broiler를 제외한 가금의 사양수수는 7,920만수이고 Broiler는 1975년 112백만수에서 115백만수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1977년부터는 1,000여개소의 양계농장을 증설하면서 400개소의 현대화된 특수 양계장을 설치하여 이들 양계장에서 연간 5억개의 계란생산을 계획하고 있고 또 50만수 이상의 산란계 사육이 가능한 15개소의 대규모 농장을 만들어 연간 15억개의 계란 생산을 목적으로 양계진흥계획을 추진중에 있다. 그리고 다른나라에 비하여, 가금육의 소비가 둔화되고 있는 것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값싸게 생산될수 있는 닭고기 생산을 장려하는 동시에 소비촉진을 위하여 크게 뒷받침 하고있다.

인도

지난 15년동안 소규모 부업형태의 양계에서 계속적으로 전업형태로 변천되어오면서 유전적으로 우수한 실용계의 생산, 과학적인 사양관리의 기술보급으로 크게 발전되어왔다. 현재 진행중인 제 6차 경제개발계획 중에서 양계발전을 위한 정부의 투자액은 제 5차 발전계획 당시 1억 7천 5백만 루피(14억원)보다 50% 이상

증가된 2억5천만 루피(20억원)로 책정되어 200만명 이상의 농민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1977년 「자나타」당의 정치출범과 동시에 복잡하고 까다로운 경제정책으로 한때 외국으로 부터의 종계수입이 제한을 받아 왔으나 국내 가금육종 사업을 정부가 강력히 뒷받침하여 외국계의 생산능력과 동등한 국산품종이 성립될 때 까지 잠정적으로 외국계 수입을 허락한다는 조건하에 외국 종계 수입은 다시 개방되었다. 현재 인도의 「벵골라」주 「헤싸하다」시에 있는 인도 중앙가금육종연구소에서는 능력이 우수한 새로운 품종을 육종하고 있으며 1978년도 부터 「HH-260」이라는 채란계 계통을 육종개발 하여 80년도까지 전국에 보급할 계획으로 종계개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리고 양계사료의 원료난 해결을 위해서 양계협회의 강력한 건의로 농산물 수출의 주요 품목인 땅콩의 수출이 많이 줄게될 정도로 정부의 보호 육성 산업으로 양계산업은 발전되고 있다. 중동 산유국에 계란수출이 시작되던 몇년동안 산란계 산업이 더욱 활기를 띠어 국내수요는 2차적인 문제로 남겨두고 우선 정부의 앞선에 따라서 1976년 9백만루피(7,200만원), 1977년에는 1250만루피(1억원)의 수출을 하였다.

양계의 봄이 일기 시작한 후 정부의 지원이나 개인사육가들의 양계산업 투자액은 1976년도에 65억루피(5,200억원)에서 1977년에는 100억루피(8,000억원)의 막대한 자금이 투자될 만큼 인도의 양계산업은 크게 발전하고 있다. 정부의 고위층관리들은 중동과 서아시아 여러나라에 양계 생산물을 수출할 목적으로 외교교섭을 하고있다고 한다. Hindustan Lever 회사에서는 연구재단을 설립하여 양계부문에 관한 연구를 위해서 연구비를 지급하고있고 양계협회에서는 자립경제 구축에서 양계산업의 중요성을 정부에 충분히 인식시켜 실제 사육가들에게 어떠한 제약조건이 주

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이 정책의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지난 15년간 산업 부산물과 폐기물로서 풍부한 단백질 식품인 닭고기 및 계란의 생산은 물론이고 수백만 인도농민의 자립터전을 형성하는데 어느 산업보다도 크게 기여한 양계산업의 중요성은 인도의 경제발전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있는 것이 분명하다.

브 라 질

최근들어 양계생산물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아라비아나 페루사만의 양계생산물 판매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브라질은 미국이나 유럽의 수출국과 맞먹는 경쟁력을 가지고 활발히 출범하고 있다. 1977년 28,000TON의 닭고기를 수출하였고 1978년에는 배이상의 양을 수출할수 있다는 브라질의 양계생산물 수출경쟁력을 여러나라에서 인식하게끔 될수 있었던 국내사정을 살펴보면, 브라질 국내에서는 대두의 많은 생산과 다른 사료원료의 풍부함을 들수있고 몇년전에는 브라질에서 생산되는 양계산물이 질적인 면에서 다른나라와 비교가 될수 없이 나뻐이나 기계화된 표준시설을 갖추어서 어느나라에 못지않는 가공 및 저장시설을 마련했기 때문이고 다른 잇점으로는 사료가격에 따른 낮은 생산가격과 더불어 국외의 가금생산물 수출은 100% 정부기관에서 싼 운반비로 어느 지역에든지 운반을 맡아서 해주고 있고 또 수출 목적지에 도달한 후 하선시까지의 비용이 정부 부담으로 되어 있어서 더욱 국제경쟁에 유리한 잇점을 가지고 있다.

얼마나 오랫동안 정부의 이러한 뒷받침이 계속되고 양계생산물의 기술적인 처리 문제가 발달될지는 알수없지만 유럽의 대규모 수출국들이 중동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국으로 브라질을 꺾고 있다는 사실이 브라질의 계속적인 양계산업발전을 입증해주고 있는 것이다.